JDC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7, No. 10, pp. 2889-2897, Oct. 2026

Check for updates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대학 입학전형 평가 방안 연구: 백석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 화 연[1] · 곽 노 윤[2] · 김 태 훈[3] · 홍 민 희[4] · 최 가 을[3] · 이 주 현[5] · 박 영 우[6*]
[1]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교수
[2]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3]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교수
[4]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교수
[5]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교수
[6]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교수

A Study on University Admission Evalua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2028 University Admission Reform: A Case Study of Baekseok University

Wha-Yeon Kim[1] · No-Yoon Kwak[2] · Tae-Hun Kim[3] · Min-Hee Hong[4] · Ka-Ul Choi[3] · Joo-Hyun Lee[5] · Young-Woo Park[6*]
[1]Professor, Major in Airline Service, Division of Tourism, Baekseok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Baekseok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Optometry,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4]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5]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6]Professor, Major in Image Animation, Division of Design and Imaging, Baekseok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요 약]

본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응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실질적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교과 성적의 변별력 약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정량 중심 선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형별 평가 설계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성적을 반영하되, 성취도 병행 활용, 졸업연도별 산출 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면접 평가 시간 확대, 평가자 표준화 교육 등 면접 운영 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an expert Delphi survey to develop practical strategies for designing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in response to the 2028 university admission reform. The findings revealed a shared recognition among experts regarding the weakened discriminative power of school record grad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five-tier grading system. They also highlighted the need for admission evaluation methods tailored to each admission typ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quantitatively focused selection methods. For academic admissions based on student records, the experts recommended emphasizing core subjects in grade evaluation while establishing detailed criteria for the combined use of achievement levels, grade calculation methods according to graduation year, and tie-breaking criteria.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the interview process by extending interview duration and standardizing evaluator training. For holistic admissions based on student records,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document evaluation and ensuring consistency in evaluation criteria emerged as key priorities.

색인어 : 2028 대학입시제도, 입학전형 설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객관성
Keyword : 2028 University Admissions Reform, Admission Procedure Design, Student Record-Based Admission, Discriminative Power, Fairness

http://dx.doi.org/10.9728/dcs.2026.27.10.288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0 June 2026; **Revised** 27 July 2026
Accepted 11 August 2026

***Corresponding Author; Young-Woo Park**
Tel: ※ 개인정보 표시제한
E-mail: parkbu@bu.ac.kr

Ⅰ. 서 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교육과정과 평가체계 전반의 전환을 맞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융합적 학습 경험의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적 지식 전달 중심 체제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1],[2]. 이러한 변화는 고교 단계의 교육과정 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의 학습 경험과 성취를 선발에 반영해야 하는 대학 입학전형 전반의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확보하하고자 수능의 선택과목제를 폐지한 통합형, 융합형 수능 체제와 고교 내신 5등급제 및 성취도 병기 방식을 도입하였다[3],[4]. 새로운 내신 체계는 석차등급을 5등급으로 단순화하고 성취평가와 상대평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평가체계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2028 대입개편에 대응하는 대학 입학전형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성적 체계 적용을 넘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

그러나 내신 5등급제와 성취도 병기 체제는 성적 분포를 압축시켜 교과 성적의 변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학 선발의 정교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5],[6]. Cho & Hwang은 전국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등급 상대평가 도입에 따른 내신 변별력 약화를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차등급, 성취도, 원점수, 분포비율 등 다양한 정량 지표의 종합적 활용과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5]. 이는 본 연구에서 백석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된 전형별 보완 장치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응하는 대학 입학전형 설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 정책 및 대학의 전형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8학년도 대입에 현행 전형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2028 대입개편이 대학 입학전형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학생부교과, 면접, 학생부종합 등 주요 전형의 유형별 평가 방법과 운영 원리를 도출하며, 셋째, 다중평가, 평가 과정의 기록 및 공개, 평가자 교육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변화와 대학 입학전형 운영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특히 지역 대학이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전형 설계 원칙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2-1 2028 대입개편과 교육체제 전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라는 교육체제 변화와의 연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입제도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인 동시에 고교 교육과정과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장치로 이해되며, 교육과정의 변화는 곧 대입 평가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주아는 2028 대입제도 개편을 대입전형 구조, 수능 체계, 학생 평가와 기록,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028 대입개편을 고교교육 체제와 대학 선발체제 전반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대입제도는 독립적인 평가 체계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7].

2-2 전형 유형 변화와 평가체계 구조화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대학 입학전형의 평가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부 기반 전형에서의 평가체계 재구조화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내신 5등급제 환경에서 교과 성적만으로는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마다 이수한 과목과 학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과성적을 산출할 때 과목 선택의 내용과 이수 규모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취도, 원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이수학점 등 보완 지표의 활용과 교과 반영 방식의 정교화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면접평가 등 보완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변별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 요소의 다변화가 강조된다. 조원기, 황우원은 성취도, 석차등급, 원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차원적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병행을 통해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5].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성평가 중심 전형에서 벗어나 정량지표와 정성평가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3 고교학점제와 대입 연계에 대한 인식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변화는 정책 차원의 설계뿐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용과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고교 교사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고교학점제에 가장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인식하고 있으나,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이 단순한 제도 설계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용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8].

또한 정책자료에서는 5등급 상대평가 병기 체제와 통합형 수능이 학생부 해석 방식, 전공별 권장과목 안내,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 등 고교 교육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전형이 교육과정 변화와 정합적으로 설계될 뿐 아니라, 평가 기준의 명료화, 평가자 교육, 다중평가체계, 평가 과정의 기록과 보존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입학전형 운영 여건의 격차는 2028 대입개편 이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Kang(2024)은 한국의 대학 교육 기회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정책이 도입되었음에도 대학 자율성 침해와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0].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변별력 약화는 지원자 풀 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중소규모 대학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바, 이들 대학은 수도권 주요 대학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의 전환을 통한 변별력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1]. Youn(2025)은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의 결합이 지역 교육 불평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12]. 따라서 2028 대입개편에 대응하는 전형 설계에서는 대학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2028 대입개편의 정책적 쟁점, 전형 유형별 평가 방향, 그리고 현장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정책 수준의 방향 제시나 전형별 일반적 개선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대학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전형 설계 원칙과 평가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 단위에서 전형 유형별 평가 요소를 구조화하고, 이를 전문가 합의를 통해 검증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며, 또한 지역대학의 여건과 인재상을 반영하여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100%),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60%+ 면접40%), 학생부종합전형 등 주요 전형의 평가 방식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한 연구도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전형 유형별 평가 요소와 운영 원리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설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응한 대학 입학전형 설계 및 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입학전형 실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델파이 조사 패널은 고교 진학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대학 입학전형 운영 경험이 있는 입학관계자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7명으로, 고교 교사 20명과 대학 입학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명, 충청권 17명이 참여하였다. 고교 교사 패널은 진로진학상담 및 교과 지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대학 입학관계자는 입학관리 부서 팀장급 실무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변화에 따른 전형 설계 및 평가 운영에 대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델파이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2025.10.10.~10.23.), 2차(2025.12.01.~12.14.), 3차(2026.01.02.~01.18.)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전형 개선에 대한 전문가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 수험생이 아닌 고교 및 대학 현장 전문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대학 전형 운영 사례 및 인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성되었으며, 입학사정관 교수 3명과 10년 이상 경력의 고교 교사 2명 등 총 5인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2028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백석대학교의 전형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후 1차 응답 결과를 범주화하여 2차 설문지를 구성하

였으며,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비동의 ~ 5=매우 동의)를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의 합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3-3 연구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은 델파이 조사 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의 수렴 과정과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응답을 받아 내용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핵심 쟁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 구조화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고,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함께 분석하여 전문가 합의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찬석(2020)의 연구와 Lawshe(1975)의 CVR 기준을 참고하여, 평균 3.5 이상 및 CVR 0.37 이상을 충족한 경우를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응답자 수가 2차는 27명, 3차는 25명이었으므로 0.37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은 삭제하거나 다음 차수에서 재검토하였다[9],[13].

이와 같은 분석 절차는 단순 빈도 분석을 넘어 전문가 의견의 수렴 정도와 내용타당성을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신뢰도 높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2028 대입개편에 대응한 전형 유형별 평가 요소, 운영 원리,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설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Ⅳ. 분석 결과

4-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100%)의 문제점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의견으로 전반적으로 백석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100%)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과 2028 대입개편안에 따라 진로선택과목에도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황에서, 현재 백석대학교의 성적 반영 체계와의 불일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각 급간의 분포 범위가 넓어 동점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석차등급 상위 15개 과목을 반영할 경우 동점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학생 간 세밀한 성취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석차등급만을 반영할 경우 학교 간 학업 수준 및 학생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진로선택과목과 학생비율의 의미 및 활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과 성취도 및 학생비율을 전 교과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그 해석과 적용 방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교별 교육환경 차이에 성적 반영 과정에서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보완적으로 언급되었다.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100%)의 평가 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 6개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석차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반영과목 수는 15개가 가장 적절하며,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및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방식이 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비교과 및 산출기준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출결 반영 비율 10% 유지는 적절하고, 석차등급 외에 성취도 지표를 병행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동점자 처리 기준의 마련과 졸업연도별 교과 산출기준 정립, 무단(미인정) 결석 및 지각, 조퇴 등을 전수화하여 출결 반영 강화. 일부 특정 학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필요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백석대학교의 입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명료한 전형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의 전반적인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영 교과를 전 교과로 확대하거나, 반대로 주요 교과 내에서 10과목 내외로 축소하여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상충된 견해를 보였다. 성취도가 산출되는 상위 3개 과목의 성적반영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2028 대입에서는 융합선택을 제외한 과목은 석차등급이 산출되므로 3개 과목 반영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탐구 및 심화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 강화, 진로선택과목의 산출 방식 조정(예: 석차등급 80% + 성취도 20% 병행) 등 지표의 혼합 활용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특히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을, 일반 및 진로선택 과목은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혼합하고, 융합선택 과목은 성취도만을 반영하는 등 과목 유형별 차등 평가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60%+ 면접40%)의 문제점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백석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60%+ 면접40%) 평가방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적성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중위권 학생들의 성실성을 확인하는데 적절하고, 선행학습 영향이 적고 이수과목이 다른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40%로 설정된 점이 교과 중심 선발이라는 전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면접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제한된 면접 시간으로 인해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과 학업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사전 공개된 예상 문항이 암기 중심의 답변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면접 문항은 인성

평가에 치중되어 학생의 전공 관심도와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60%+ 면접40%)의 평가 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현재 면접 반영 비율 40% 적용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인성 및 태도(40%), 전공적성 및 비전(30%), 문제해결능력(30%)으로 구성된 현재의 평가영역 체계가 균형 잡힌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자 대상의 표준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수험생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 평가 시간을 현재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면접 예상 문제를 사전에 공개하는 현행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문항은 인·적성 중심으로 출제하되, 사전 공개되는 문항의 수는 15개 내외가 수험생의 준비 부담과 평가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분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면접 반영 비율을 30%로 축소하되, 높은 변별력이 요구되는 특정 학과에 한해서만 40%를 유지하자는 차등 적용 의견과 '문제해결능력'평가 영역 명칭을 '의사소통능력'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면접 문항의 방향성만 공개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상황형이나 응용형으로 변형하여 출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항 내용은 단순 인·적성 질문을 넘어 전공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공 관련 질문을 포함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위해 면접 평가 시간을 5분이 적절하다는 의견,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언급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서류100%)의 문제점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서류100%)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서 현행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내신 5등급제 도입과 학생부 기재 내용의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간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과 평가자에 따라 학생부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서류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고등학교 현장에서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학생부 기록 작성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 평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서류100%)의 평가 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평가 범위 및 방식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평가 대상으로 삼되, 각 평가영역과 연관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현재의 평가영역별 반영 비율인 인성적 자질 40%, 학업적 역량 30%, 발전가능성 30%의 평가체계가 정성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 계열과 같은 특정 전공에 한해 권장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반영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인기가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면접 평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평가 요소의 정교화 측면에서 학생부 평가항목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발전가능성'이라는 평가항목 명칭을 '진로탐구역량'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목적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업 역량이 극히 중시되는 일부 학과에 한해서는 낮은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과 면접 평가의 확대 및 전형 설계에 대한 의견, 학생부종합전형 전반에 면접 평가를 도입하거나, 서류를 보완하는 형태의 단시간 면접을 활용하자는 의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형을 '서류형 학생부종합전형'과 '면접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리하여 이원화 운영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수 과목의 중요성 강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권장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반영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정성평가의 신뢰도 제고, 평가자 편향 최소화, 수험생의 전형 이해도 향상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정성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면접 및 논술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자료로 보관하는 방식이 평가의 사후 검증과 이의 제기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류평가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는 AI 기반 표절 탐지 도구를 활용하여 제출 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평가자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중 평가 및 교차채점을 기본 운영 방식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다중 채점 방식을 통해 특정 평가자의 편향을 최소화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평가자 자격 관리 체계의 정비와 사전·사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성평가의 채점 방식과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교사 및 학생이 참여하는 모의 서류평가 실습 확대와 모의 면접, 학교 탐방 프로그램 등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백석대학교의 전형 별 평가체계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복잡한 전형 방식보다는 수험생과 고교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구조의 전형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4-2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개방형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하여 현재 백석대학교 전형유형별 대입 평가 방식이 2028학년도에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평가 개선방안, 2028학년도 대입을 대비하여 백석대학교 대입전형

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으로 총 7개의 상위항목과 51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Likert type 5 point scale)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폐쇄형 설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인별 개방형 응답란을 추가하여 요인과 관련된 기타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게 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학생부교과(학생부 100%)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문항, 학생부교과(학생부60%+ 면접40%)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문항,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문항,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방안: 9문항으로 제2차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분석은 평균값 3.5 이상, CVR(내용타당도) 0.37(N=27)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을 모두 통과한 항목을 전문가 사이의 동의 수준이 일치한 것으로 보았다. 기준을 미충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삭제하거나, 기준 수치에 미약하게 미충족되었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어 재설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의 논의를 통해 제3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재설문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 결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100%) 문제점의 5개 문항 중 '5등급제로 인한 교과 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가 우려된다(평균 4.19, CVR 0.85)'는 문항이 가장 높은 합의도를 보였고,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산출과 현재 반영 체계의 불일치(평균 4.04, CVR 0.64)'문항과 '성취도별 분포비율의 유불리 문제(평균 3.93, CVR 0.55)'문항도 기준을 도달하여 합의가 도출되었다. 반면, '석차등급 상위 15개 과목 반영 시 동점자 발생 가능성'문항과 '석차등급만 반영 시 학교 간 격차로 인한 불공정 우려' 문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방안은 현행 평가 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다. '6개 주요 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의 석차등급 반영(평균 4.15, CVR 0.70)'문항은 높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출결 반영 비율을 10%로 유지(평균 4.15, CVR 0.70)',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를 점수화하여 출결 반영을 강화(평균 4.00, CVR 0.41)', '석차등급 상위 15개 교과 반영(평균 3.63, CVR 0.41)',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반영(평균 3.56, CVR 0.41) 문항도 전문가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을 미적용하는 현행 방식(평균 4.07, CVR 0.7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반영(평균 3.89, CVR 0.41)' 문항 역시 의견이 일치하였고, '졸업연도별 교과 산출 기준 마련 필요하다.(평균 3.63, CVR 0.41)'문항은 합의가 이루어져 졸업연도에 따른 성적산출의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성취등급 반영교과를 전 교과로 확대', '성취도 산출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의 성적 반영', '일부 특정 학과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문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60%+ 면접40%)의 문제점 분석 결과, 1차에서 제기된 소수 의견 모두 합의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평가방안은 4개 항목이 임계치를 통과하여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평가자 표준화 교육이 필요하다(평균 4.30, CVR 0.85)'는 문항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합의를 기록하였고, '전공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공 관련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평균 3.81, CVR 0.48)' 문항, '면접 예상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평균 3.70, CVR 0.48)' 문항, '인·적성 문제 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평균 3.67, CVR 0.41)'는 의견은 합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현행 면접반영비율 40% 적용', '현행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적절', '전공적성 및 비전 평가영역 반영비율 상향', '문제해결능력 평가영역을 의사소통능력으로 영역명 변경', '면접시간 증가', '면접문제 일부 공개 및 일부 비공개' 문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서류100%)의 문제점의 2차 조사 결과, 1차에서 제기된 의견은 전문가 집단 전체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합의되지 못하였고, 평가방안은 6개항목이 임계치를 통과하여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학생부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평균 4.00, CVR 0.78)',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명칭을 진로탐구역량으로 변경하는 것(평균 3.89, CVR 0.48)', '일부 모집단위(간호·보건·인기학과 등)에 선택적으로 면접평가를 도입(평균 4.00, CVR 0.85)', '학종(서류형)과 학종(면접형)으로 전형을 분리 운영(평균 3.59, CVR 0.41)', '권장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반영을 일부 전공(공학·보건 등) 중심으로 부분 도입(평균 3.78, CVR 0.48)'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평균 4.26, CVR 0.64)'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미반영 기조 유지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학생부평가 항목 구체화', '권장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반영', '서류보완을 위한 면접평가 도입', '일부 학과에 낮은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문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방안 분석 결과, 총 9개 문항 중 6개 항목에서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평가자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평균 4.44, CVR 1.00)' 문항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평균 4.41, CVR 1.00)'문항은 CVR 값이 1.00으로 나타나 전문가 전원이 해당 방안의 타당성에 동의하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였다. 또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형 운영(평균 4.41, CVR 0.93)', '다중 평가, 교차 채점 구조 운영(평균 4.19, CVR 0.85)', '정성평가 채점 방식 및 평가 기준 공개(평균 4.04, CVR 0.56)', '교사 및 학생과 연계한 모의 서류평가 실습 확대(평균 4.04, CVR 0.70)'문항 역시 합의 기준을 상회하며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반면 '정성평가 전 과정의 녹음 및 녹화 자료 보관', 'AI표절탐지도구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외부 기관(또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다중 채점'문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4-3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3차 델파이 설문지는 제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하여 설문 내용을 제거 및 수정 하였고, 재설문이 필요한 문항을 총 4요인,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3차 델파이조사의 분류 요인 및 문항 수는 학생부교과(학생부100%)전형의 평가 방안: 2문항, 학생부교과(학생부60%+ 면접40%)전형의 평가 방안: 6문항,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안: 3문항, 공정상 및 객관성 강화 방안: 3문항으로 제3차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2차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가 패널 27인 중 2명이 중도 포기하여 전체 25명에게 제3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델파이조사 시 2차 델파이조사 설문 항목의 평균값을 제시하여 신중한 대답을 유도하였고, 동의 및 비동의의 수준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 정도를 '보통'이라는 응답보다는 가급적 긍정 혹은 부정 중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제3차 델파이조사 분석은 평균값 3.5 이상, CVR(내용타당도) 0.37(N=2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을 모두 통과한 항목을 전문가 사이의 합의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 결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100%) 평가방안의 2개 문항 중 '일부 특정 학과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이 필요하다(평균 3.60, CVR 0.60)'는 의견은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성취도 산출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의 성적반영'문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60%+ 면접40%) 평가방안의 6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임계치를 통과하여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현행과 같이 면접반영비율 40% 적용한다.(평균 4.12, CVR 0.68)'문항이 가장 높은 합의를 이루어졌고, '평가영역별 반영비율(인성 및 태도 40%, 전공적성 및 비전 30%, 문제해결능력 30%) 적절하다.(평균 3.68, CVR 0.60)', '문제해결능력 평가영역은 의사소통능력으로 영역명 변경이 필요하다.(평균 3.68, CVR 0.52)', '면접평가시간을 현재(5분)보다 증가해야 한다.(평균 3.76, CVR 0.52)', '면접예상문제는 일부 영역만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로 본질적인 역량을 평가하도록 한다.(평균 3.88, CVR 0.76)'문항 역시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공적성 및 비전 평가영역 반영비율 상향'문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학생부종합전형(서류100%) 평가방안의 3개 문항 모두 전문가 집단의 통계적 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방안 분석 결과, 총 3개 문항 중 '면접·논술 등 정성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평균 3.52, CVR 0.44)'는 의견은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반면 'AI표절 탐지도구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외부 기관(또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다중 채점'문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Ⅴ. 결 론

2028학년도 대입 환경은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변별력 약화, 고교학점제 확산에 따른 과목 선택 다양화, 통합형 수능 체제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전형이 기존의 정량 중심 선발 구조를 유지할 경우 학생의 학업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변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형 개선의 핵심은 단일 요소의 조정이 아니라 전형별 정체성 강화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합리적 재구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학생부교과전형은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며 5등급제 환경에서의 변별력 약화를 정량지표의 정교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주요 교과 중심 반영과 석차등급, 성취도의 병행 활용, 학년별 동일 반영, 출결 요소 유지 등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졸업연도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산체계 마련과 동점자 처리 기준의 정교화가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일부 특정 학과에서는 학업역량 확인을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선택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면접 결합 교과전형은 내신 변별력 약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형으로 확인되었다. 면접 반영비율 40% 유지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인성 및 태도, 전공적성 및 비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평가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며, 면접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자 표준화 교육을 강화, 면접시간을 확대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이다. 평가 요소를 급격히 확대하기보다 서류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면접평가의 도입이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과 같은 변화는 모집단위 특성과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성평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평가 과정의 기록과 보존, 평가 기준 공개, 다중평가체계 운영, 평가자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학 입학전형에 있어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운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2028 대입개편의 대학 입학전형은 단순한 성적 활용 방식의 변경을 넘어 전형 유형별 목적과 평가 방식, 대학 인재상 간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량지표의 투명성과 정성평가의 타당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형 설계 방향은 향후 대학 입학전형 운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형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제도 시행 이후의 실증적 검증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5등급제 적용 이후의 전형 결과 분석, 면접 및 서류평가의 신뢰도 검증, 전형별 평가 요소의 예측 타당성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입학전형은 교육과정 변화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5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202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fication No. 2022-33) [Internet]. Available: https://att.pmg.co.kr/FileData/CO/345~356%EC%AA%BD%20%EA%B0%9C%EC%A0%95%EC%82%AC%ED%95%AD(2022%20%EA%B0%9C%EC%A0%95%20%EA%B5%90%EC%9C%A1%EA%B3%BC%EC%A0%95)(1).pdf.

[2] J. T. Lim, M. K. Cho, Y. S. Kwon, D. Y. Kim, J. S. Park, D. J. Lee, ... and J. H. Shi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mission Procedures Following the 2028 College Admission System Reform,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4. https://iphak.khu.ac.kr/submenu.do?menuurl=7o6CZK4SE%2FZm%2Fkm5uoXMkQ%3D%3D

[3] Ministry of Education, Final Plan for the 2028 College Admission System Reform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Press Release, 20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824

[4] Ministry of Education, Release of Sample Questions for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Integrated Science in the 2028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ress Release, 20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370

[5] W. K. Cho and W. W. Hwang, "The Direction of Student Record-Based Admission Evaluation in Light of the 2028 College Admissions Reform," *The Journal of Curriculum Evaluation*, Vol. 28, No. 2, pp. 189-216, 2025. https://doi.org/10.29221/jce.2025.28.2.189

[6] T. Kang, "Effects of the Achievement Assessment System on College Admissions and Recommended Addressing Strategies," *Educational Research*, Vol. 91, pp. 181-201, 2024. https://doi.org/10.17253/swueri.2024.91..009

[7] J. A. Kim, Analysis of Major Issues in the 2028 College Admission System Refor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incheon, Issue Paper IP2022-11, 2022.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954

[8] T. H. Kim, B. Ahn, and K.-S. Kim,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High School Teachers and Admissions Officers on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 30, No. 1, pp. 31-64, 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43488

[9] C. H. Lawshe,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Vol. 28, No. 4, pp. 563-575, 1975. https://doi.org/10.1111/j.1744-6570.1975.tb01393.x

[10] H. Kang, "South Korean Policies for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Focused on Local Talents Screening in Selection of University Entrant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Regional Development*, Vol. 15, No. 15, pp. 19-33, 2024. https://unii.repo.nii.ac.jp/records/2000175

[11] L. Kim and S. Y. Kim,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the 2028 University Admission System Using Text Mining,"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38, No. 3, pp. 51-74, 2025. https://doi.org/10.24299/kier.2025.383.51

[12] M. Youn, "Small Schools, Narrow Gates: How School Size Shapes Access to Prestigious Universities,"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ol. 63, No. 2, pp. 327-348, 2025.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70892315

[13] C. Park, "A Study for Deduc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ealth Safety and Welfare Policy for Korean Firefighters by Delph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6, No. 1, pp. 34-43, 2020 https://doi.org/10.15683/kosdi.2020.3.31.034



김화연(Wha-Yeon Kim)

2009년 :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학석사)
2013년 :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2014년～현 재: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부교수
※관심분야 : 항공산업(Aviation Industry), 관광산업(Tourism Industry), 대학 입학 전형(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학생부종합전형(Comprehensive School Records Screening) 등



곽노윤(No-Yoon Kwak)

1994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공학사)
1996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0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0년～현 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Deep Learning-Based Computer Vision), VLA(Vision-Language-Action Models), 제스처 기반 UI/UX(Gesture-Based UI/UX), 얼굴 및 시선 인식(Face and Gaze Recognition), 객체 트래킹(Object Track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김태훈(Tae-Hun Kim)

2003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이학사)
2006년 : 세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석사-안경광학)
2011년 : 세한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안경광학)
2012년～현 재: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관심분야 : 안경광학(Optometry), 안의료용 고분자 소재(Ophthalmic Polymer Materials), 시각재활(Visual Rehabilitation) 등



홍민희(Min-Hee Hong)

2011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2012년～현 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보건학(Health Science), 구강보건(Oral Health), 학생부종합전형(Comprehensive School Records Screening) 등



최가을(Ka-Ul Choi)

2005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물리학)
2009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물리학)
2010년～2023년: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부교수
2024년～현 재: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근시관리(Myopia Management), 콘택트렌즈(Contact Lens), 학생부종합전형(Comprehensive School Records Screening) 등



이주현(Joo-Hyun Lee)

2011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 석사)
2016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 박사)
2019년～현 재: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신경계작업치료학(Neurological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평가(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학생부종합전형(Comprehensive School Records Screening) 등



박영우(Young-Woo Park)

2017년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애니메이션 제작 석사)
2024년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박사수료)
2025년～현 재: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디자인(Design), 예술공학(Art and Technology), 대학 입학 전형(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학생부종합전형(Comprehensive School Records Screening) 등